

## 교회소식

- ▶ **환영:**  
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 
주일 예배는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드리됩니다.
- ▶ **행사:**  
10/01/23 (주일): 제직회, 남/여선교회 월례회
- ▶ **감사:**  
♥오늘 친교를 준비해 주신 이윤정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  
- ▶ **알림:**
  - ◎ 오늘의 양식(9월, 10월, 11월)을 배부합니다.
  - ◎ 9월 글렌데일 코리안/벨리 매거진을 배부합니다.
  - ◎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14차 총회 및 선교대회  
9/18~21사이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.
  - ◎ 故 강정숙 안수집사 천국 환송 예배  
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. 참석하시어 설교를 해주신  
천방욱 목사님과 수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 
드립니다.
  
- ▶ **합심기도 제목:**
  1. 새 가나안 장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
  2. 조성훈장로님: 주의 일을 감당 하실 수 있는 건강 주소서
  3. 김왕증: 앞길 주님께 맡기오니, 가장 선한 길로 인도 하소서  
김예림: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고,  
축복이와 가족들이 늘 건강하게 하소서
  4. 이윤정권사님: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 주소서
  5. Mr. Bob Purcell: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건강케 하소서
  6. 지미경집사: 왼쪽 눈 백내장 수술(9/18 월요일)도 잘 되어  
눈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소서

지난 주 헌금 드리신 분들	
십일조/주정 /주일	이 천, 이크리스틴, 이장욱, 이정혜, 이영식, 이은경, 김병권, 김명숙, 하효경, 이윤정, 김정목, 지미경, 강경우, 이노엘
감사헌금	

50권 38호      2023년 9월 17일

대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(PCIGA)

# 새 가나안 장로교회

NEW CANAAN PRESBYTERIAN CHURCH



**담임목사: 이 천**

---

시무장로: 조성훈 이장욱  
반주: 김진경

---

6338 N. Figueroa St. Los Angeles, CA 90042  
☎ (323) 256-7575, www.ncnac.org

# 주일 예배

교독문 33. 시편 72편

12:30 PM

인도: 이 천 목사

경배와 찬양		다함께
기원		인도자
※찬송	43장 (통 57장)	다함께
※성서교독	교독문 33. 시편 72편	다함께
※신앙고백	사도신경	다함께
찬송	268장 (통 202장)	다함께
대표기도		김명숙집사
오늘의 말씀	디모데후서 4:7~12	인도자
찬양		이장옥장로
설교	신실한 동역자 누가	이 천 목사
기도		설교자
찬송	436장 (통 493)1,4절	다함께
헌금		하효경집사
※봉헌찬송	634장 (통 70장)	다함께
※봉헌기도		인도자
교회소식		인도자
※인사		다함께
※찬송	54장 (통 61장)	다함께
※축도		이 천 목사

※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

#	구분	대표기도	찬양	헌금위원	친교
38	09/17/23	김명숙	이장옥	하효경	이윤정
39	09/24/23	이장옥	김병권/김명숙	하효경	강경우(故 강정숙 집사 가정)
40	10/01/23	김병권	이정혜	하효경	이장옥/이정혜
41	10/08/23	하효경	김병권/김명숙	지미경	이은경
42	10/15/23	이정혜	하효경	김명숙	

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

◎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

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

◎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

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

◎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,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

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 까지 이르리로다

◎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

(다같이)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. 아멘

성경말씀: 디모데후서 4:7~12

-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
-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
-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
-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,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
-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
-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. 아멘